

비전을 공유하며

Jan Parker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자애와 성실하심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이다.”
(시편 138:1-2)



Francis 교황의 칙서 *Laudato Si'* (찬미 받으소서)는 "주여,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찬양의 감정과 시편 138 장의 아름다운 말로서 국가 형제회 집행 평의회 (NEC)를 2015 년 6 월 19-21 에 개최 하였습니다. 이 것은 중요한 회의 이었습니다.

국가 형제회 서기로 봉사한 여러 해 동안 저는 "national (국가 형제회)"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여 NEC 의 비전과 소식을 공유해 왔습니다. 서기로서는 아마 마지막일 이 기사에서 저는 6 월 NEC 회에서 우리가 한 것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매 회의 때 마다 "national"이 하는 것으로 평의회로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 입니다.

국가 집행 평의회는 올해 다소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6 월회의 전 몇 달은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으로 당황해 하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명확해지는 길을 갈망하면서 이 회의에 왔던 것 입니다. 우리가 목요일 저녁 모일 때 물론 포옹이 있었고, 기쁨과 웃음가운데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뤄야 할 일은 힘들었습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John 6:63.68)

우리 회칙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 합니다. %이도와 관상이 자신의 온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회칙, 8 조). 금요일 아침에는 용건을 다루기전에, 단 한 결정도 내리기전에, 모여서 90 분 동안의 기도와 양성을 하였고, 토요일 아침에는 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생명을 구하는 시간 이었습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여정과 꿈"에서 부터 "복음의 기쁨" 까지 프란치스칸은 성스러움을 향한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이길을 같이 걷습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연례 총회를 계획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방문과 선거 일정을 업데이트 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더 멋진 일은 성스러움을 향한 길로 같이 여행한다는 것 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스러움을 두려워 하지마라; 목표를 높이 세우기를 두려워 마라, 당신 자신이 하느님에 의하여 사랑받고 정화되도록 하라; 당신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되도록 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Francis 교황, 자비의 교회, p. 32)

우리의 기도와 양성 시간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공간에서 원형을 이루며 모여 계획적으로 이 시간을 가집니다. "자기 비움"의 기도가 성령께서 방에 들어오시도록 허용합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감동을 주는 오래된 기도 즉 시편기도를 공동으로 바칩니다.

너희가 가장 원해야 하는 것, 즉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은총이 너희안에 역사하시도록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박해와 질환 중에 겸손과 인내함을 추구하라...(초기 회칙 XVII 15-16)

우리는 성서의 하느님 말씀과 다른 가치 있는 낭독을 듣고 음미한다.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우리는 잠시 멈춘다.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 조심스럽게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말을 듣는 것은 책으로 부터 똑 같은 메시지를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전달되는 것은 생명이며 정신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살아있는 말을 사용하신다." (Jean Vanier, 소통과 성장, 개정판, 175 쪽)

우리는 각 형제자매의 마음으로 부터 나오는 말; 개인의 경험을 반영하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말을 주님의 귀중한 선물처럼 음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친밀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일치를 필요로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된 우리는 서로의 성스러움 그 자체가 아름다움 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각 평의원이 평의회에 가져오는 선물 - 우리가 같이 일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선물을 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을 반영할 때 인간적 접촉이 자양소가 되는 것" 이라고 전 JPIC (정평환보) 의장인 Kent Ferris 가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을 나눌 때 우리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거기에서 부터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이룩하는 솔직한 대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실제적 배려와 적극적인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일체됨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는 자기중심적 관심에서 벗어나 같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시간에 속한 장소입니다. 정신없이 서두르기도 없고 우리의 생각을 강요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믿음과 희망의 장소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안건을 토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기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느님이 우리를 모이게 한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며 하느님이 실패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프란치스칸임을 알고 있으나 이회는 우리의 회가 아니라 하느님의 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단순성과 작아짐에 유래합니다. 위압적이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 관심사는 각자와 모두에 대한 하느님의 큰 사랑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욕구를 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서 하느님께서 섭리에 의해 우리를 배려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해, 용서, 평화, 일치와 사랑을 맨 먼저 선포하고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Pope Francis 교황, 자비의 교회)

기도로 결합되고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우리는 서로 함께 괴로운 계곡을 서로 함께 걸어갈 수 있고 이것을 원동력의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움으로 가는 길에서 하느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급속도로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6월 국가 집행 평의회에서 Francis 수사는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손바닥위에 "겸손"이라는 한 작은 참새를 잡고 있듯이 우리를 하느님께 들어올렸다. 그들로 부터의 "두려움"이라는 늑대를 달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친구가 되도록 권유하였다. 작은 참새와 길든 늑대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노래하며 마침기도로 마음이 결합되어 작은 원형을 이루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후 성령의 거룩한 활동을 열망하며 우리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에 산재된 인용문들은 6월 집행 평의회중에 우리가 사용한 양성재료의 일부이었습니다. 저는 Mary Bittner 자매와 Bob Brady 수사 OFM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말씀이 이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줍니까?"라고 성령께 질문하면서 양성을 준비한 모든 양성위원께 저의 감사를 포함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자료는 단지 양성의 일부입니다. 똑 같이 중요한 것은 모인 평의원들의 참여와 기여입니다. 국가 집행 평의 회원과 위원회 의장인 형제자매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보여준 진심어린 나눔, 영감을 받아서 얻은 통찰력과 경청은 형제회 확립을 위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회에 대한 이런 사랑과 헌신은 성스러움을 향해 걷고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긴장되고 어려운 시기에 특히 필수적입니다. Francis 교황 성하께서 회칙 *Laudato Si'*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창조물을 위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태양의 찬가 (canticle)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때문에 용서하는 자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그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양성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심에 우리 주여, 찬미 받으소서. 항상 기도와 관상이 우리의 온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